

전남·부산·경남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맞손

경남 통영서 협약... 해수부도 한 뜻 벨트 조성추진단 구성 등 협력키로 김 지사 '남해안 종합개발청' 제안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경남도와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오전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해수부-남해안권(부산·전남·경남) 정책협의회'를 열어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혔고,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도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했다.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가 이날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열고



박완수(왼쪽부터)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20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해수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지

원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시·

도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조성추진단 구성·

운영', '기반시설 연계·확충, 글로벌 브랜드·관광자원·상품 개발', '해양레저관광 관련 제도 정비·중장기 전략 수립', '국제 행사 개최·공동 홍보' 등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반적 조성 방향을, 3개 시·도는 지역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남해안은 더 이상 한반도의 끝자락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자 해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서 환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친환경 수도'로 우뚝 설 것"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이 원팀이 돼 남해안을 세계 속에 빛나는 해양관광·휴양 중심 거점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남해안권 개발이 종합적·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추진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6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참여 부처는 해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행정안전부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 '단수사고' 관련 매뉴얼 점검 착수

시 "재발방지책 강화 차원"

광주시가 지난 12일 발생한 단수 사고와 관련 행정대응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고장에 따른 수도물 수만톤이 유실된 것과 관련해 사고 발생 이후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매뉴얼 41개를 점검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있는지 살피고, 업무 담당자들이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충분히 익히도록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수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수

습 과정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수장 밸브 작동 실패 등 물 공급 전 과정을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감사위가 매뉴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광주 덕남정수장에서 유출 밸브가 고장나 극심한 가뭄 위기 속에 수도물 5만7000톤이 유실됐고, 2만8576가구가 단수 피해를 봤다.

시는 단수피해를 입은 세대와 영업장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고 있다. 박상지 기자

무등산 정상 내달 4일 개방

유네스코 재인증 유력 기념

오는 3월4일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이 개방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무등산 정상 개방은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평가에서 '그린카드'를 획득한데 이어 이달 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까지 기대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상 개방 행사에서는 기념품 증정, 캐릭터 탈인형과 기념사진 촬영, 재인증 준비과정을 담은 사진전 등 무등산 정상과 중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망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상 군부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내국인만 출입이 허용된다. 사진은 군사보호시설구역 특성상 정해진 자리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제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119구급차량, 헬기 등도 준비한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줄이고 질서유지 위해 북구·동구·북부서·동부서의 협조를 받아 총장사 삼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한다.

이밖에도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하고, 장원초등학교·충민사·총장사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개방한 이래 2022년 가을철 개방까지 25회 걸쳐 47만 5000여 명이 다녀갔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정상개방 및 군부대 이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무등산 정상상시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전담팀(TF)'을 꾸리고 상시개방을 위한 세부 합의 및 군부대 이전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해 무등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탐방로 설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 등 상시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全南日報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명당(穴)을 만드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3. 3. 8 (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 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3. 3. 1 (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 (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택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 (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 (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돈** 투자금

장비대금 **돈** 약정금

전세금 **돈** 임대료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돈**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10-5679-0990, 062)714-2846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셔틀→거문도 상수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셔틀→거문도 상수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